

## 중국의 조선 출병 시말

楊奎松(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연구원, 역사학)

한국전쟁은 월남 전쟁을 제외하고 냉전 기간에 공산주의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 사이에 발생한 가장 주목을 끈 치열한 전쟁이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건국한 후 미국과 진행한 유일한 군사적인 직접 충돌이었다. 십몇년간 지속된 내외 전쟁을 막 끝내고 국가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극히 낙후된 상황에서 중국은 왜 일체를 돌아보지 않고 북조선을 위해 당시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과 일전을 벌였을까?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한국전쟁을 치른 의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모두가 각국 역사가들의 오랜 논쟁 중의 하나였다. 냉전 종식 이전에도 상당한 수의 연구 성과가 출판되었고, 어떤 성과는 보편적인 검증은 거쳤지만,<sup>1)</sup> 엄격히 말해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대

1) 이 이전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중국과 한국전쟁의 관계”를 논술한 중요한 저작으로는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New York : MacMillan, 1960)와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Princeton, 1990)가 있다. 러시아 문서가 아직 미공개된 시점에서 중국 대륙측의 이

통령 당안관과 러시아 외교 정책 당안관에 보존했던 이 전쟁 관련 중요 당안의 비밀 해제를 한 후에야 비로소 이 부분의 역사를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새로이 해제된 러시아 당안을 이용하여 한국전쟁 관련, 특히 중국의 출병 참전에 관련된 연구는 근래 미·러 양국 학자들이 치중한 비교적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발표되었거나 관련 모임에 제출된 성과는 수십 편에 이른다.<sup>2)</sup> 서로 비교해 보면, 중국 학자 중에는 이 당안을 이용해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은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다.<sup>3)</sup>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 관방은 설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면의 연구는 한계가 있으며, 조선측의 불필요한 교섭을 피할 필요가 있다.<sup>4)</sup> 이렇게 보면 러시아 당안의 해제는 이미

---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비교적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저작으로는 徐焰, 『第一次较量—抗美援朝的历史回顾与反思』(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0)가 있다.

- 2) 필자는 1996년에 沈志華·齊德學 두 선생과 함께 『关于朝鲜战争研究的新材料新观点』, (军史科学院)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다. 이 책에는 최근 몇 년간 미국·러시아·한국 등 여러 나라 학자들의 비교적 중요한 연구 논문 27편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 발표된 비교적 중요한 영문 저작으로는 또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가 있고, 이외에도 1996년 1월 9~12일,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와 홍콩 대학이 홍콩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in Asia"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40여 명에 가까운 각국 학자들이 제공한 논문 중에도 3분의 1이 이에 관한 것들이었다.
- 3) 현재 중국 대륙에서 이 문제에 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연구를 한 학자로서는 沈志華 선생 한 명뿐이다. 그는 홍콩에서 두 권의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 한 권은 1995년에 천지도서 회사에서 출판한 『朝鮮战争揭秘』이고, 다른 한 권은 1997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한 『毛泽东·斯大与林战』이다.
- 4) 필자는 이미 전부터 러시아에서 공표된 문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필자가 1994년에 쓴 연구 성과는 필명 靑石으로 홍콩 『明報』 월간에 게재되었다. 1997년 필자는 중국 참전 문제에 관해서 잡지 『百年潮』에 시리즈로 소개의 글을 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조선측의 외교 교섭을 불려일으켰다. 『百年潮』도 이로 인해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4,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중국 학자의 심도 있는 연구는 사실 진정한 발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미국, 조선 등 각국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에 직면해서는 중국 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의 깊은 연구가 부족한바, 어쨌든 모두가 일종의 약점이다. 본문은 필자가 본 중러 양국의 해제 당안 자료를 가지고 관련 학자들의 성과를 참고하여 중국의 조선 출병 시말을 스스로 해독해 본 것이다.

## 1. 냉전의 음영

1945년 8월, 소련군은 중국 동북에 출병하는 동시에 정세를 이용해 북조선을 해방시켰다. 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미국측은 전후로 독일과 조선에서 모두 소련에 대항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자신의 점령 구역 내에서 분리 정부를 구성하였다. 1948년 2월 하순, 미·영·프 3국은 우선 런던에서 소련을 배제한 3국 외상 회의를 열고 3국의 독일 점령 지역을 합병하여 분열된 서독 정부를 구성하는 협의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소련측은 강력한 반발을 하였다. 3월 20일, 독일 관제위원회에 대해 동맹국 퇴출을 선포하였다. 그 후 미·영·프 3국은 단독으로 화폐 제도를 바꾸어 서독은 철저히 독일 소련 점령 지역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 모스크바는 서방이 점령했던 베를린 서부에 대해 육로 봉쇄를 명령했고, 서방 국가를 베를린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그 유명한 베를린 위기이다. 조선의 분열은 사실 이 시기에 발생했다. 똑같이 미국은 소련에 도전을 하였다. 미국은 5월, 소련의 조선 통일정부 건립 주장을 외면하고 남조선에 반공의 이승만 정권 건립을 도왔다. 소련군도 9월에 북조선에서 김일성을 도와 친소적인

노동당 정권을 건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탈린은 동서 양방향에서 동시에 미국과 충돌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미소는 조선에서의 직접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독일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소련은 단독으로 북조선에서의 철군을 채택하였고, 미국도 남조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12월, 소련군은 먼저 북조선에서 철수하였다.

남북조선이 분열된 현실에서 소련군의 철수는 단지 동아시아에서 미소 사이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잠시 피하려는 것이었으나 미소는 남북조선을 각자 세력 범위로 하는 방침을 유지하였고 오히려 쌍방이 남북조선 두 정권 사이의 충돌에 대해 참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군대는 철수했지만 남북조선 사이의 긴장 관계는 도리어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소련이 철수하자 미군은 한때 철수하려 하지 않았다. 북조선 정부가 받은 압력은 자연 증대하였다. 김일성 정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소련측에 조소 우호 상호 조약 체결과 무기 원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베를린 위기의 해결이 어렵고,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충돌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스탈린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었다. 하물며 이와는 반대로 미국도 남조선과의 동맹화를 재촉할 수 있으므로, 스탈린은 북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김일성의 무기 요구도 제한을 하였다.<sup>5)</sup>

김일성은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북조선에 대한 지지 강화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3월 5일, 스탈린과의 회담 중에 스탈린은 이에 대해 어떤 승인도 하지 않았다.<sup>6)</sup> 그러나 4월 중순, 김일성이

---

5) 1949년 1월 19일, 슈티코프의 전보문, Russian Presidential Archive(APRF), 245/m/arf/5 참조

6) APRF, 45/1/346/13~23.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스크바는 조선인에게서 얻은 정보를 언급했다. 즉, 미군은 5월 남조선에서 전부 철수하고, 이승만은 미군 철수 후 6월에 북조선에 대해 1차 대규모 진공을 하여 2개월 만에 전투를 끝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당시 베를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영·프 등에 타협안을 강구하고, 북조선이 작전 경험이 부족한 3개 보병사로 효과적인 저항을 할 수 없어 북조선을 잃게 된다면 소련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속히 북조선에 도와 기계화 병단, 항공 병사 및 기타 포병 부대 조직 계획을 비준하였다. 동시에 김일성에게 승리의 진군 중에는 중국공산당의 병력상의 도움을 찾으라고 분명히 건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의 전투력이 있는 조선족 관병의 북조선 인민 부대 편입을 동의하도록 모택동을 설득할 수 있다면 정세는 북조선 군대의 작전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모스크바의 제의에 따르면, 김일성은 매우 빨리 노동당 중앙위원, 인민군 정치부 주임 김일을 특사로 하여 5월 상순 막 중공 중앙 소재지가 된 북평을 비밀리에 방문하도록 하여, 모택동에게 북조선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보내는 구원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모택동은 김일성의 우려에 동의했다. 그는 북조선과 남조선 사이에 수시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소련과 중국은 김일성 편에 서 있으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금씩 중국 사병을 증파하여 보내되 모두 검은 머리이므로 누구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의 최대 수확은 중국 지도층의 북조선이 진공을 받을 경우 실제 원조의 구체적 보장이었다. 그리고 모택동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3개 조선족사 및 장비를 모두 북조선에 넘긴다고

7) 1949년 4월 17일,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1949년 5월 1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1949년 5월 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APRF, 245/m/arf/25, 37~40, 41~44*. 슈티코프가 말한 소위 김일성이 사전에 모스크바가 이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소지가 있다.

흔쾌히 동의하였다. 또 동북 지역에 배치한 2개 조선족사를 수시로 모두 북조선 인민군에게 편입시킬 수 있으며, 다른 1개 사는 전투가 일단락을 고하기를 기다렸다가 북조선에 넘긴다고 명확히 언급하였다.<sup>8)</sup>

분명하게 냉전 후의 미소 충돌은 한반도의 분열을 조성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쟁 책동 지역의 중요 요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베를린 위기에서는 매우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북조선을 보호하려는 결심을 재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으로부터의 긴장 소식은 북조선으로 하여금 손쉽게 군사력을 증강하게 하였다. 이해 9월에 중형 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의 소련 군사 장비가 북조선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인민군도 9만 명 가까이로 늘어나 남조선과 비슷하였다. 이는 한마음으로 빠른 조선의 통일을 기대하는 북조선 지도층을 고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첫 번째 제안을 시작했다. QA측, 인민군은 남조선에 대해 진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평양 주재 소련 외교관이 모스크바에 보내는 보고에는, 김일성이 보기에 국제 형세가 허락한다면 “그들은 2주 안에 충분히 남조선을 점령할 수 있으며 길어도 2개월이다”라고 하였다. 당연히 모스크바는 김일성의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sup>9)</sup>

## 2. 모스크바의 목표

김일성이 긴박하게 소련에 자신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하도록 요구하여

---

8) 1949년 5월 15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APRF, 245/m/arf/45~48.

9) 1949년 9월 3일, 頓金이 維辛斯基에게 보낸 전보문, 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 (AVPRF), 05a/5a/11/136~138.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때, 중국공산당도 모스크바에 거의 비슷한 요구를 하였다. 1949년 봄의 국공 회담이 깨지자 해방군이 신속히 도강하여 남경, 상해와 동남 연해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국민당은 오히려 그들의 대본영을 바다 건너 대만으로 철수시켰다.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려면 대만 해협을 정복해야 대만을 탈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공군도 해군도 없어 작은 어선에 의지한 도해 작전은 어려움이 컸다. 이를 위해 중공 중앙 주요 지도자 유소기는 6월에 중공 중앙 대표단을 이끌고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에 원조 요구를 제출했다. 유소기가 스탈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소련의 공군 출동과 해군 원조 문제를 분명히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200여 대의 비행기 제공과 조종사 훈련을 제공하여 대만 진공 전투에 사용하도록 한 답변 외에 대만 진공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거절하였다. 이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할 뿐 아니라 오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소련 인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10)</sup>

국민당과의 전쟁이 순조롭게 진전되자 모택동은 이 시기에도 소련의 원조에 그리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10월 하순, 복건 연해 도서 금문도 탈취 전투를 경솔하게 비준하여 익숙지 않은 해도 작전의 특수 상황으로 상륙 부대 3개 단과 4개 연대 9,000명 전부를 희생시켰다. 그는 비로소 소련 기술의 취득 필요성을 인정하였다.<sup>11)</sup>

1949년 12월 모택동은 첫번째로 방소하여 16일 스탈린과 만난 당일 그는 완곡하게, “국민당 지지자는 대만에서 해공군 기지를 건립했다. 해군과 공군의 열세는 인민해방군의 이 지역 점령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장령들이 계속 소련 원조를 제의했고, 예로 지원 조종사 혹은 비밀 군사 특수 함대를 파견하여 대만 탈취에 협조해 달라”고 제안

10) 1949년 7월 4일, 유소기가 소련연방공화국과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 1949년 6월 27일, 유소기와 스탈린의 회담 요약 등. 『党史研究资料』, 第2期(1998) 참조

11) 徐焰, 『金门之战』(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2), p. 82 참조

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약간의 지휘관과 군사 교관 제공만 답하고 기타 형식의 원조는 완곡하게 거절했다.<sup>12)</sup>

스탈린이 두 차례나 중공 중앙의 구원 요구를 거절한 근본 이유는 소련이 1945년 2월 소·미·영 3국이 체결한 얄타 협정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탈린에 따르면, 미소는 얄타 협정에 따라 각자 극동의 세력 범위를 교환하여 소련은 남고혈도(南庫頁島), 천도군도(千島群島)와 차르 정권의 중국 동북 특권을 얻었다. 그 조건은 중국 장성선(長城線) 이남의 미국 세력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중공이 국민당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하자, 모스크바는 시종 강렬하게 미국의 직접 간섭에 대한 위협성을 우려하였다. 1949년 10월 1일 중공이 건국하자, 1945년 8월 모스크바가 국민 정부와 얄타에서 협정한 기초 아래 체결한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의 폐지 문제는 소련공산당 지도층도 자못 걱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얄타 협정의 효력-남고혈도와 천도군도의 주권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였다.<sup>13)</sup>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은 소련 조종사와 군함을 보내 중국의 대만 진공을 돕기는 불가능했다. 하물며 이 시기 대만의 지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확정할 수도 없었고, 대만에 대한 진공은 미국의 군사 간섭을 끌어들이지 않았다.<sup>14)</sup>

이해해야 할 것은 김일성이건 모택동이건 스탈린의 당시 거절은 모두 일종의 책략적 고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모택동의 대만 탈취에 대한 생

---

12) 1949년 12월 16일, 스탈린과 모택동의 회담기록, 『党史研究資料』, 第5期(1998) 참조

13) 모스크바측에서 '中蘇 우호 동맹 조약을 폐지함으로써 초래되는 소련의 南庫頁島와 千島群島의 주권에 영향이 미칠까봐 강력하게 우려했던 점은 1949년 12월~1950년 1월 소련 지도자와 모택동의 담화 가운데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关于1950年中苏条约谈判的部分俄国档案文献, 『党史研究資料』, 第5期(1998) 참조

14) 소련 주재 평양 대사가 1949년 9월 14일에 維辛斯基에게 보낸 전보문에서, "미국이 중국 대륙에서 실패한 후 필연적으로 중국이 조선에 있는 동안 조선 실무(朝鮮事務)에 관해 더더욱 간섭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관점은 또한 당시 모스크바의 대부분의 견해였다고 할 수 있다. AVPRF, 059a/05/3/11/46~53.



각에 스탈린은 반대하지 않았다. 단지 중국은 자기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제의했을 뿐이다. 즉, 공중 투하 혹은 유력 인사의 파견, 폭동의 조직 등으로 말이다. 그래야 안팎으로 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계획에 대해서 모스크바의 태도는 분명했다. 즉, 문제의 관건은 북조선에 있으며, 진공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대립 국면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 의 조선에 대해 각종 간섭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으로 인민군을 강화하여 남방의 유격전을 확대하고, 민중 기의의 발발을 준비함과 동시에 국가의 평화 통일 선전 공세를 강화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는<sup>15)</sup> 조건이 구비되면 모스크바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진공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기회는 의외로 모택동의 방소 기간중에 왔다.

1950년 1월 5일과 12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국무장관 애치슨이 각기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의 안전선은 대만과 남조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 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여 보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6)</sup> 모스크바가 고려했던 1949년 9월의 우려는 중심 문제가 미국 간섭의 위험성이었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웠었다. 미국 정부의 공개 성명은 스탈린에게 충격적이었다.

모택동이 모스크바 방문 당시 스탈린과 논의했던 북조선 통일 문제에 대한 견해는 새로 해제된 러시아 당안으로 이미 추측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스탈린은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있을 때, 김일성으로부터 조선의 빠른 통일 계획의 비준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10일 후, 즉 1950년 1월 30일, 그는 김일성에게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15) 1949년 9월 23일, 몰로토프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 1949년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 제71차 회의 결의, APRF, 3/65/776/30~32, 33~38.

16) Acheson press conference, January 5, 1950,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anuary 16, 1950, p. 81.

바라며 관건은 “이 거사는 반드시 커다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것은 중국 안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모택동에게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중공 중앙에 대해서 그는 먼저 답변했던 3억 달러 차관의 반을 대만 진공에 가장 필요한 해군 장비 구매에 사용하도록 동의했을 뿐이었다.<sup>17)</sup>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택 지지한 까닭은 이해하기 쉽다. 첫째, 일본은 극동에서 소련의 숙적이므로 소련의 안전 측면에서 소련에 인접한 조선은 대만보다 중요하였다. 1945년 미군이 남조선을 점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스탈린이 이를 조건으로 미국에 소련군의 일본 부분 점령 인정을 생각하여 주도적으로 조선 점령의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미군이 남조선을 점령한 것은 생각지 않고, 트루먼 대통령은 오히려 소련군의 일본 진입을 거절하였다. 그 결과 소련은 직접 일본을 처벌할 숙원을 실현할 수 없었다. 소련의 위협이 되는 일본이 그 위력을 갖출 가능성이 큰 한반도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냉전 구조가 형성되자 미국이 일본을 소련에 대항하도록 부식시키는 모습이 날로 분명해졌다. 트루먼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독일과 일본을 소련에 저항하는 보루로 확장하려 했다. 스탈린은 자연 불안을 느꼈다. 일본은 점령할 수 없으므로, ‘내전’을 통해 조선을 공산당 수중에 넣을 수 있다면 나아가 조선이 일본을 위협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역시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스크바는 1949년 9월, 김일성의 주동적 진공 계획을 그리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북조선의 군사력 부족과 속전속결이 어려워 미국의 간섭이 우려됐을 뿐이다.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sup>18)</sup>

17) 1950년 1월 19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보문, AVPRF, 059a/5a/3/11/87-91, 92.

18) 미국이 일본을 육성시켜 소련에 대항한 상황에 관해서는 邁可·沙勒, 郭俊禾譯, 『亞洲冷戰與日本復興』(台北金禾出版社, 1992), p. 91, 105. 스탈린이 갑자기 결정을 바꾸어 김일성의 통일 계획을 지지한 원인에 관해서는 沈志華 선생의 『毛澤東·斯大林與』

두번째는, 미국이 안전선에서 대만과 조선을 제외한다고 선포하여 모택동과 김일성에게 같은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련의 불개입을 전제할 것이다. 대만 해협을 건너 대만에 진공하려면 소련 조종사와 함정이 필요했다. 남조선에 진공하려면 소련인을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선의 통일 전쟁은 미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

1950년 3월, 스탈린의 건의에 따라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계획에 분명히 동의했다. 그는 명확하게 “현재의 형세는 과거와 다르다. 북조선은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반드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 문제는 중국 동지와 모택동 본인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김일성은 스탈린이 동의하면 모택동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은 스탈린에게, 그가 모스크바에 가기 전에 대사를 통해 모택동에게 조선 통일 문제로 방문하겠다고 통지했다고 했다. 모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모는 조선 대사에게 김일성의 내방을 환영하며, 김일성에게 조선 통일의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이번 방문은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9)</sup> 모택동은 이에 대해 준비된 생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북경 중남해의 회인당에 모습을 드러냈

---

韓戰』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인 요소는 스탈린이 모택동과의 회담에서 新조약에 조인할 때 동의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소련이 국민당 정부로부터 얻은 대련과 여순의 부동항만을 중국 新정부에 반환할 것에 동의하게 된 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탈린은 (이전에 꿈꾸었던, 비록 나중에는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포기했지만) 조선 반도의 인천과 부산, 이 두 개의 부동항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법은 분명히 더욱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러시아인이 일본에 대한 유래 깊은 공포감, 스탈린이 중국에서 잃은 부동항을 조선에서 얻고자 이렇게 큰 모험을 하면서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미소 냉전하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韓戰』, pp. 178~222 참조.

19) 1950년 5월 12일,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5월 13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51~53.

다. 저녁 회담에서는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회담 결과를 우선 통보했다. 모택동은 이를 의외로 받아들였다. 그는 한국전쟁의 발발이 대만 진공을 준비하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스탈린이 어떻게 이처럼 쉽게 조선 통일에 찬성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간단한 의견을 교환한 후 모택동은 이 대화를 중단하였고, 소련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후 그는 주은래를 긴급히 소련 대사관에 보내 로신 대사에게 즉각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김일성의 생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날 저녁, 소련 대사는 스탈린의 전보를 가져와 모택동에게 보였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모택동 동지!

조선 동지와의 대화에서 빌리포프(스탈린)와 그 친구들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국제 형세가 이미 변화했다. 그들은 조선의 새로운 통일 실현에 착수하겠다는 건의에 동의했다. 부대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중국 동지와 조선 동지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중국 동지가 의견이 다르면 문제 해결을 연기하고 새로운 논의를 한다. 회담의 상세한 내용은 조선 동지가 당신에게 전할 것이다.<sup>20)</sup>

스탈린의 분명한 태도에서, 모스크바의 중국 혁명 간여에 불만을 갖고 있는 모택동은 거추장스러운 역할을 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불만스러웠다. 몇 년 후 그는 소련 대사 및 미카엘·샤루예프 등과의 대화에서 여러 차례 이 일을 들추었다.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다. 김일성이 달려와 스탈린이 동의했다고 말해서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

---

20) 1950년 5월 13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5월 14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1/55.

나 화가 났는지는 논하지 않았으며 찬성을 표명했을 뿐이다.

5월 15일, 모택동은 다시 김일성과 회담했다. 그는 김일성에게 자신이 우선 고려한 것은 대만의 해방이며, 그러고 나서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북조선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 문제는 모스크바의 비준을 얻었고, 그는 우선 조선 통일에 동의했다. 모택동은 작전 계획은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며, 부대 행동은 신속하고 주요 도시를 포위해야 한다, 다만 도시 점령을 위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병력을 집중하여 적의 핵심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2, 3만 명의 일본군이 참전하면 장기화될 수 있다,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도 파병하여 너희를 도울 것이다, 소련은 미국과의 조약 제한을 받고 있어 참전하기 어려우며 중국은 이런 의무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우려를 떨치고, 스탈린의 경우 제국주의는 간섭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모택동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 말을 하면서 제국주의 일은 크게 생각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참모장이 아니며 그들의 생각이 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준비는 필요하다, 우리는 압록강변에 3개 군을 배치할 생각이며 제국주의가 간섭치 않으면 장애가 없다, 제국주의가 간섭하면 38선을 넘지 못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다, 38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1)</sup>

전후 미국의 일본 점령 문제에서 소련 배제와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을 소련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도록 도운 것은 모두 스탈린이 갈수록 갈망하던 세력 범위를 조선으로 확대하게 된 중요 원인 중 하나였다. 1950년 1월 진공 결정에 찬성을 할 때와 1949년 9월 진공 반대 시기의 역량을 비교하면 한반도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미소간에도 마찬가지로였다.<sup>22)</sup> 이 기간에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스탈린이 김일성과 모택

---

21) 한국 외교부, “6·25진상: 러시아정부가 공개한 한국전쟁 기밀문서”(1994년 11월)를 참조; 1957년 7월 14일, 모택동과 米高揚의 담화 기록.

동에게 말한 ‘국제 형세’였다. 이런 형세는 바로 트루먼과 애치슨이 미국 안전선의 범위를 정한 성명이다. 모스크바는 이미 한반도를 탈취하여 일본을 제압하려는 전략 목표가 있었다. 미국이 조선인 사이의 내부 충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만 하면 한국전쟁의 발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3. 착오의 결과

스탈린의 답변과 군사 수단을 통해 조선을 통일한다는 계획을 김일성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부터 모스크바는 북조선에 무기 공급과 군사 원조를 서둘렀다. 작전 계획 역시 소련 바시리에프 중장과 소련군 고문조가 협조하여 제정된 것이다. 주의할 만한 것은, 이런 분명한 모스크바의 비준 명

---

22) 남북조선 양측의 군역량의 변화, 북조선 군대는 1949년 9월의 9만여 명에서 11만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重武器의 수량도 전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는 모스크바에서 강조한 남쪽 유격대 활동의 규모는 1949년 가을에 비해 대대적으로 축소되었다.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戦争』(上)(国防大学出版社, 1990, 중문 번역본), p. 4.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스탈린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중요한 요인은 소련이 원자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원자탄을 발사한 날짜는 1949년 8월인데, 모스크바는 그대로 한 달 후 진공을 반대하는 결의를 내렸다. 그 후 몇 달 동안 소련의 원자 기술은 스탈린이 미국에 위시했던 만큼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스탈린은 소련측이 원자탄 장치를 단지 하나만 발사했을 뿐, 300개 원자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과 전혀 함께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적재 수단도 효과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Kathryn, Weatherby, “Conference Report : The Korean War, An Assessment of the Historical Record”, *Korea-America Society*(Georgetown University, July, 1995) 참조; 羅格·丁曼, “朝鮮战争期间的原子外交”, 『朝鮮战争研究的新材料新观点』, p. 404에서 인용함.

의로 얻어진 “기선 제압의 작전 계획”에는 인민군 역시 20여 일 정도 걸려야 남조선 해방의 군사 행동을 실현할 수 있었다.<sup>23)</sup> 이 시간은 미군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증원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모스크바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미 육군부가 일찍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한 1949년에 이미 긴급 상황에서의 간섭 계획을 정하였고, 조선의 심각한 군사 충돌의 경우 UN의 특수 부대 조성으로 경찰 행동을 통한 충돌 제지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sup>24)</sup>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은 당일 UN에 의안을 제출하고 소련 대표의 불참으로 소련이 부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북조선의 무장 진공을 견책하고 UN 각 회원의 남조선 원조 결의를 통과시켰다. 27일, 미 대통령 트루먼은 미국의 남조선 지원을 선포하는 동시에, 대만의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7함대에 대만 해협에 진입하여 대만에 대한 어떤 진공도 저지하여 전쟁의 만연을 방지하라고 명령하였다. UN은 이날 결의를 통과시켜 각 회원국이 긴급한 군사 조치를 취하여 남조선을 원조하도록 요구하였다.<sup>25)</sup>

미국 7함대가 직접 개입하자 1951년 봄에 진행된 대만 탈취 작전은 중

23) 이 군사 계획의 세부에 관해서는 1992년 9월 12일의 『纽约朝鲜时报』에 제일 처음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 학자 박문수 선생이 이 자료를 인용한 논법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 문서 내용을 밝혀서 서술한 러시아 국방부 군사역사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할 때 그는 “북조선 인민군은 두 주 사이에 곧 남조선 군대를 완전 소멸할 것이며, 온 조선 반도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로 뒤에 정문에서는 “이 작전 계획에 의하여 북조선 군대는 매 24시간에 15~20km씩 밀고 나갈 것이며, 22~27일 사이에 군사 행동을 계속지을 것”이라고 썼다. 朴文洙, “斯大林的对外政策与朝鲜战争”, 『关于朝鲜战争研究的新材料新观点』, pp. 166~167을 참조.

24) 齊德學, 『朝鮮战争决策内幕』(辽宁大学出版社, 1991), p. 23.

25) 트루먼 정부의 한국전쟁 발발 후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관해서는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New York: The Free Press, 1985);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를 참조.

지되었다. 중공 중앙의 내부 지시에는 미국의 현대화된 해군과 해상 충돌을 진행시킬 자본이 없으므로 단지 “대만 진공을 연기한다”고 하였다.<sup>26)</sup> 이와 동시에 미국의 남조선 출병으로 중국 동북 변방 및 조선에 대한 중원 문제도 날로 긴박해져 중국의 전략 중점도 동북 지역으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대만 진공 준비는 점차로 흐지부지되었다.

7월 2일, 모택동·주덕·유소기는 오후 토론회를 진행하고, 주은래는 소련 대사 로신을 만나, 중국 정부는 미국과 UN의 성명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주은래는, 모택동은 북조선 지도층과의 몇 차례 대화에서 모두 미국 간섭 가능성을 얘기했으나 조선 동지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군사 간섭은 확대될 추세였으며 인민군은 미국의 간섭에 의한 좌절 여부가 우려되었다. 모택동은 조선 동지가 인천 지역 방어선을 강화하기를 바랐다. 미국은 그곳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연히 이런 상륙 작전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만일을 위해 중국 정부는 중조 변경에 9개 사의 병력을 집중시켜 미군이 38선을 넘지 않으면 그만두고, 일단 38선을 넘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원군의 형식으로 조선에 들어가 인민군과 협조하여 미군을 공격하도록 준비하였다고 했다. 주은래가 제출한 이 문제로 중국 정부는 스탈린의 의견을 듣고 싶어했다. 동시에 소련 공군이 이 부대에 대해 공중 엄호를 제공해 주기 원했다.<sup>27)</sup>

전쟁이 시작된 며칠 동안 인민군의 작전은 매우 순조로웠다. 따라서 스탈린의 이 시기 전쟁 형세의 계산은 낙관적이었으며, 미국을 저지하여 간섭을 확대하는 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소련은 UN 안보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의 통과를 저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소련 대표는 1일부터 대만 국민당이 계속 UN 안보리 상임이

26) 蕭勁光, 『蕭勁光回顧錄(續)』(解放軍出版社, 1988), p. 26.

27) 1950년 7월 2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1/75~78.



사국의 중국 자리를 점거하는 데 항의하여 UN 회의의 출석을 거절하고 다시 안보리 회의에 돌아오지 않았다. UN 주재 소련 대표는 이런 위협성을 지적했지만, 스탈린은 오히려 그를 되돌려보내 부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7월 7일, 소련의 불참으로 미국 대표는 쉽게 UN 안보리에서 'UN군' 조직의 결의를 통과시키고 맥아더를 총사령으로 임명하였다. 게다가 영국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를 통해 완곡하게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민군의 38선에서의 철수를 재촉하여 평화적인 조선 문제 해결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때 스탈린은 강력하게 중국과 조선 정부에 전문을 보내 “영국의 이런 요구는 무례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스탈린은 전쟁 승리에 자신이 있었다. 미국이 군사를 확대하여 휘말릴 위험이 있음에도 북조선이 계획대로 신속히 전진한다면 미국이 크게 간여함이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신속히 중국 변경에 9개 사의 부대를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여 만일을 준비한 것이다. 스탈린은 주은래에게 “적이 38선을 넘을 경우 9개 중국 사를 중국 변경에 집중하여 지원군이 조선에 들어가 작전하는 것은 정확하다”, “우리는 이 부대를 위해 공중 엄호를 제공한다”고 로신을 통해 알렸다.<sup>28)</sup>

7월 10일, 중공 중앙 군사위원회는 ‘동북변방을 보위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국가 전략 예비대의 제13병단 및 그 관할 제38·39·40군과 이미 제제합의(齊齊哈爾) 지역에서 농업 생산에 종사하던 제42군 등 모두 52만 명을 뽑아 동북 변방군을 조성하여 필요한 경우 조선인민군 작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sup>29)</sup>

8월까지 조선인민군의 작전은 모두 비교적 순조로웠다. 7월 말, 인민군

28) 1950년 7월 5일, 필리포프·로신이 주은래에게 전한 전보문; 1950년 7월 13일, 필리포프가 로신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1/79, 85.

29) 『建国以来毛宅东文稿』, 제1册(中央文献出版社, 1987), p. 428.

은 낙동강까지 전진하였고 남조선 군대는 몇 만 정도 남았다. 그러나 약 10만 미군이 상륙 증원되면서 북조선의 전쟁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 후 대략 보름 동안의 적진 돌파가 진행되어 인민군은 비로소 미 제8군 집단이 낙동강변에 건립한 방어선을 뚫어 승리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인민군에게 8월 말까지 미국을 조선에서 몰아내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발표하였고 인민군 전선이 한미 군대 최후의 장악 지역 부산항과의 거리가 지척에 있었지만 조금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

조선 전세의 진전은 중공 중앙의 조선 원조 문제의 긴박성에 대한 계산에 영향을 미쳤다. 8월 중순, 모택동은 분명히 미제는 실패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승리하면 만족하여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조선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주은래도 긍정적으로, 한국전쟁의 철저한 승리는 “중국 요인이 더해져야 하며 중국 요인이 더해지면 국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는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sup>30)</sup> 이 시기 모택동, 주은래와 소련 대사 전문가 및 군사 고문들의 대화에는 중국이 북조선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는 결심이 있으며, 해방군은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8월 말에 인민군의 부산 진공 작전은 심각한 저항을 받았고, 미군이 이미 부산 지역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자 모택동은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미국이 충분한 기동 부대를 안배하여 인민군에 대한 반격을 시도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는 소련에 전쟁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동시에 지시를 내려 군사위원회가 임박한 전쟁에 “12개 군을 집중하여 기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sup>31)</sup>

1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부산이라는 뼈다귀를 갉으면서 스탈린 역시 사정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 조선의 여러 가지 정보에서, 향

30)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上)(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1), p. 43.

31) 『建国以来毛宅东文稿』, 第1册, p. 454, 469, 485.

공 모함에서 떠오른 미국 공격 기기와 미국 육전대의 화력 우세가 인민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힘을 불어 넣어 줘야 했다. 8월 28일,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에는 “러시아의 1919년 영·프·미 무장 간섭 시기의 처지는 현재 조선보다 어려웠다”, “김일성 동지는 외국 간섭자들과의 전쟁에서 계속적인 승리가 없다고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전진중에 저항을 받고 혹은 어느 정도 부분적 실패로 손실을 본다. 이런 전쟁에서 연속적 승리는 없다”고 하였다.<sup>32)</sup> 그러나 스탈린의 격려도 한국전쟁의 역전된 형세를 바꿀 수 없었다.

9월 15일, 맥아더의 주도면밀한 준비로 미군 1만 8,000명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대량의 미군은 신속히 한반도 중부 37선에 끼어들어 서울을 점령하고, 신속히 인민군 주력과 평양의 연계를 끊어 한반도 남단 작전에서의 인민군 제1, 2집단군에 전군 소멸의 위협을 주었다.

상륙 이튿날, 모스크바는 사태의 진전을 긴장하며 주시하였다. 미 육전대는 한강 남안으로 전진하고 미 비행기가 조선의 제공권을 장악하자 스탈린은 안절부절못하였다. 그는 한편으로는 국방부장에게 긴급히 소련 공군을 출동하여 평양을 보위하는 계획을 제정하라고 명령하고, 한편으로는 김일성에게 신속히 남방에서 4개 사를 철수시키고 서울 이북과 이동에 방어선을 쳐서 남북 통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고 전문을 보냈다.<sup>33)</sup>

한국전쟁이 여기에 이르러서도 중조간의 대화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 단계의 중소 양국 지도층의 왕래 전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시종 북경에 전쟁 관련 어떤 소식도 알리지 않았다. 많은 소련 고문이 조

32) 1950년 8월 28일, 슈티코프가 편지(스탈린의 화명)로부터 전달받아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47/10~11.

33) 葛洛托夫, “斯大林·毛泽东·金日成과 中国决定介入朝鲜战争”, 『朝鲜战争研究的新材料新观点』, pp. 148~149을 인용함.

선에 있었지만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북조선에 한 명의 군사 감시단도 없었다.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도 8월 중순까지, 즉 한국전쟁이 시작된 2개월 만에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에게 미군의 인천 상륙 소식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주은래는 18일, 긴급히 소련 대사를 만나 소련 정부에 조선 전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주은래는 모택동의 권고를 듣지 않은 김일성에게 불만이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조선인민군은 아마 전 예비대를 인천에 상륙한 적 소멸에 집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남방에서 주력 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34)</sup>

9월 27일, 서울의 저항이 완전히 끝나자 소련 고문단의 인민군 제1, 2 집단군이 혼란에 처해 거의 모든 무기를 상실하고 운수 및 지휘 연락 계통이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보고가 스탈린의 책상에 놓여졌다. 스탈린은 마침내 전쟁이 이미 기울고 있음을 의식하였다. 그는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UN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에게 즉각 미국 국무성 대표와의 접촉 기회를 찾아 평화적인 조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소련 군사 고문은 전력으로 북조선 인민군의 철수 공작을 계획할 것을 결정했다. 스탈린은 조선의 소련 대표단의 중국측 후방 원조 요구에 관한 건의를 비준하였다. 그러나 대표단 단장 마터비에프에게 보내는 전문에는, 김일성에게 중국에 운전사 등 인원을 파견하는 것을 건의할 경우 모스크바를 언급치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sup>35)</sup>

28일, 소련 대표단의 건의에 따르면,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대부분 인민군 주력이 철수하지 못

34) 22일 스탈린의 답전에서는 “북조선이 적시에 戰況을 북경에 통보하지 못한 것은 주로 김일성이 전선과의 연락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틀림없이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것이다. 위의 책, pp. 148~149.

35) 1950년 9월 26일, 마트베에브(조선에 간 소련의 특별 대표단 단장)가 편시에게 보낸 전문문, APRF, 3/65/827/90~93, 103~106.

했으므로 서울 함락 후 미군의 38선 월경을 저지할 수 없으며 북조선 함락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반드시 소련과 중국에 직접적 군사 원조를 요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sup>36)</sup>

이는 실패가 정해진 전쟁이었다. 3개월의 작전에 북조선의 공격은 상당히 완강했지만 계획 중의 작전이 아니라 요행의 맹목적 작전이었다. 어렵지만 김일성의 착오를 인정해야 한다. 러시아 학자들은 “김은 일생을 조선, 만주와 소련 극동 지역에서 지체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가 미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sup>37)</sup> 문제는 스탈린에게 있었다. 베를린 위기는 이미 분명하게 미국이 소련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준다. 미군이 참전하면서 부대의 마지막 모험인 진공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계속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온 스탈린은 어떻게 했는가? 합리적인 해석은, 스탈린의 입장에서 북조선이 패전할지라도 소련이 직접 미국의 위협에 직면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중국이라는 병풍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북조선이 미국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경은 압록강변에 9개 사를 배치하기로 결심하고 어느 정도 스탈린을 믿었다.

---

36) 1950년 9월 30일,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47/41~45, 46~47.

37) 符拉基米爾·彼得洛夫, “毛宅东·斯大林·金日成: 新的诠释”, 『关于朝鲜战争研究的新材料新观点』, p. 290.

## 4. 모택동의 결단과 결행

10월 1일 새벽 2시 50분, 스탈린은 소련 대사가 전해 온 김일성의 정식 구원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소련의 직접적 군사 원조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당연히 김일성도 소련이 출병 원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래서 보충하여, “어떤 이유로 이 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국과 기타 인민 민주 국가가 국제 지원 부대를 조직하여 군사 원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편지를 가져온 지 10분도 안 되어 스탈린은 북경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내는 전보를 구술하여 모택동 혹은 주은래에게 신속히 전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동지의 상황은 절망을 느끼게 한다”, “눈앞의 형세에 따라 당신들이 부대를 통해 조선을 도울 수 있다면 적어도 5, 6개 시를 빨리 38선으로 전진시켜 조선 동지가 당신들 부대의 엄호 아래 38선 이북에서 후방 방어 역량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라. 중국사는 지원자의 신분으로 출전한다. 당연히 중국의 지휘관이 통솔한다”는 내용이다.<sup>38)</sup>

스탈린의 전보는 김일성의 특사 박헌영이 보내온 구원 서신과 함께 10월 1일 당일 전후로 북경의 중남해에 도착했다. 모택동은 저녁에 서기처 지도자 주은래, 주덕과 유소기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모택동의 의견은, 이 일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 그리고 중국과 동방에 모두 불리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누가 참여하며 누가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관건은 이 모험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있다고 하였다. 회의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적 논의를 하였다.<sup>39)</sup>

---

38) 1950년 9월 30일,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47/41~45.

39) 1950년 10월 1일, 로신이 필리포프로부터 받은 전보문을 모택동·주은래에게 전함, APRF, 45/1/334/97~98.

우선, 미군은 부산에서의 효과적인 저항, 인천 상륙으로 조선인민군의 주력을 포위하여 쫓고 있으며, 북조선에 대한 무차별 폭격 등 모두가 미군의 장비, 화력에서 커다란 우세를 점하였고 지휘와 전술 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참여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조선 경내에서 미군과 장기적인 대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은래가 예시한 숫자에 따르면, 미군 1개 군은 70mm 이상 구경의 화포가 100여 문이 있고 동시에 탱크가 거의 500량이며, 해방군은 평균 1개 군에 이런 화포 36문이 있으며 동북 변방군은 1개 군에 최다 190문이 있을 뿐이다. 하물며 탱크는 없다. 게다가 미군은 제공권을 가지고 있고, 해방군의 첫번째 공군은 빨라도 1951년 2월에야 300여 대의 비행기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장비와 화력의 대비가 현저한 조건에서 대미 작전에 투입되면 유리하겠는가?

다음은, 몇 해에 걸친 전쟁에서 인민은 방금 평화와 안정을 얻었고 국가는 경제의 전면 회복 시기에 방금 진입하였다. 미국 작전에 대해 물질적인 소모 외에 미국의 대륙 선전 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공군을 통한 대도시와 공업 기지의 무차별 폭격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해군의 사용과 대만 국민당을 동원해 대륙 연해 지역의 진공을 포함하여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2개월 전 중국 지도자의 낙관적인 태도와 비교해 보면 조선 전세의 급격한 악화는 그들의 출병 조건에 대한 예상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변화시켰다. 모택동을 제외하고 다수 회의 참석자는 출병에 대해 그리 자신감이 없었다. 모택동은 오히려 자신의 우세라고 주장하였다. 예로 해방군은 북조선에 비해 많은 대규모 작전 경험이 있으며, 미국과 조선에서의 전투는 자신이 후방에서 가까우며, 병력이 많고, 소련의 무기 장비의 지원과 공군의 엄호만 있다면 미국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미국을 몰아내지 못할 경우 일단 미국은 전 조선을 점령하고 압록강변에 진을 치면, 이후에는 동북의 가장 중요한 공

업 기지가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10월 1일 저녁 회의에서는 유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참석자가 일치 동의하여 둘째 날 대낮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출병 문제를 토의하였고, 모택동은 기다리지 않고 서기처 모임 이후, 즉 2일 새벽에 두 통의 조선 출병을 결심한 전보를 기초하였기 때문이다.<sup>40)</sup>

모택동이 기초한 두 통의 전보 중, 한 통은 동북군 사령구 사령원 겸 정치위원회의 고강과 당시 동북 변방군의 제13집단군 사령원 등화(鄧華)에게 보내 동북 변방군에게 준비 작업을 끝내고 출동하여 조선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명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한 통은 스탈린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지원군 명의로 일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미국 및 그 괴뢰 이승만 군대와 작전하여 조선 동지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조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이 중국에 공개 선전 포고하더라도 이 전쟁은 장기화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 중국군의 미국군에 대한 승리 여부는 소련의 장비 제공 상황에서 결정난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미군과 해방군의 화포와 기타 중장비 차이를 열거하면서 긴 목록을 나열하여 소련의 신속한 무기 장비의 제공을 요구하고, 각 군마다 500~600문의 화포를 취하였다. 그는 현재 “우리는 우선 남만주의 12개 사를 10월 15일 출동시켜 북조선의 적당한 지역(꼭 38선이 아니라도)에 위치시켜, 한편으로 서슴없이 38선 이북으로 진공하는 적과 작전하여 첫번째 시기에는 단지 방어전을 하고 소수의 적을 섬멸하며 각 방면의 상황을 분명히 하면서, 한편으로 소련의 무기 도착을 기다리고 우리 장비로 시작하여 조선 동지와 배합하여 반격을 한다”, 실전 과정에서 쟁취해야 할 것은 적의 병력의 4배를 사용하고 적의 화력보다 1.5~2배를 사용하여 “자신 있고 깨끗하고 철저하게 적을 섬멸한다”고 강조했다.<sup>41)</sup>

40) 1950년 10월 2일,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문,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1册, pp. 538~541.



모택동은 당일 낮에 거행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거의 모든 지도층, 특히 동북에서 몇 년간 대병단을 지휘했던, 그가 조선 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군사 장령 임표 등이 모두 현재의 조선 출병에 회의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지 않았다.<sup>41)</sup>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두 통의 내용이 확연히 다른 전보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통은 위에 언급한 중공 중앙 문헌연구실에 의해 만들어져 『건국 이래 모택동 문고(建国以来毛泽东文稿)』에 수록된 1차 사료인 10월 2일의 전보이며, 다른 하나는 러시아 학자가 1995년 러시아 대통령 당안관에서 찾은, 모택동이 3일 새벽 소련 대사 로신을 만나 구술한 전보이다. 후자의 전보에는, “우리는 적이 38선 이북에 진입할 경우 몇 개 사의 지원군을 북조선에 파견하여 조선 동지를 돕겠다고 계획했었다. 그러나 전면적 고려를 통해 우리는 현재 이런 행동은 극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몇 개 사에 의존해서 조선 문제 해결은 어렵다(장비의 열세로 미군과의 작전에 승리의 확신이 없다). 적은 우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 둘째,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공의 공개적인 충돌을 가져온다. 그 결과 소련도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중공 중앙의 많은 동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몇 개 사를 파견하면 적은 오히려 우리를 후퇴시키고 동시에 미국과 공개 충돌하게 되고 우리의 평화 건설 계획은 철저히 파괴되어 국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시킨다(인민이 받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이물지 않았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심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량을 준비하면 적과의 작전 시기를 파악하는 면에서 비교적 유리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모택동은 최후에 “이 문제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우

41) 위의 전보문.

42) 聶榮臻, 『聶榮臻回顧錄』(下)(解放軍出版社, 1984), p. 736 참조

리의 처음 전보이며 당신들과 상의하기 바란다”고 표명하였다.<sup>43)</sup>

이전 모스크바가 북경에서 얻은 출병 문제 관련 소식은 모두 적극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모택동의 답변은 소련으로서는 의외였다. 중국공산당에 의지하여 미군의 북조선 점령 저지를 기대하던 스탈린은 이에 대해 자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0월 5일, 소련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조선 국세의 만회 방법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모두 북조선을 포기하더라도 소련은 직접 미국과 충돌하는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스탈린은 여전히 중국을 설득해 미국을 몰아내줄 것을 희망했다. 회의가 끝나자 모택동에게 전보를 보냈다. 모택동을 안심시켜야 했다. 그는 미국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 참전하면 미국은 조선 점령 계획을 포기한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면 중국의 역량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하리라고 생각지 말라고 단언했다. 심지어 소련의 전쟁 개입을 걱정하지 말라, 중소간에는 상호 동맹 조약이 체결되어 미국이 대중국 선전 포고를 한다면 소련은 좌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걱정되는가? 내가 보기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연합하면 미·영보다 강하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는, 특히 독일(현재 미국에 어떤 도움도 불가능했다)은 중요한 군사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라고 하였다.<sup>44)</sup>

사실 모택동은 출병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군사 지도층을 설득하느냐였다. 적당한 지휘관을 찾기 위해 10월 2일 회의 후에 주은래를 전세기로 서안에 보내 그곳의 팽덕회를 북경으로 불러들였다. 4일,

---

43) 1950년 10월 3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4/105~106. 두 통의 전보문 내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은 미국과 홍콩에서 있었던 회의에서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 沈志華 선생은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분석을 해주었다. 沈志華, 『罗申致菲利浦夫电』, pp. 245~256.

44) 1950년 10월 8일, 편사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47/65~67.

팡덕회는 북경에 도착하여 모택동의 견해를 듣고 “소련은 손을 놓았고 우리 장비는 뒤떨어져 조선의 망국만을 기다리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재차 고려 끝에 모택동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10월 5일, 회의에서 스탈린의 전보가 도착하기 전에 모택동은 이미 팡덕회 등 다수 정치국 지도층을 회유하여 지원군 결성을 결정하였다. 모택동의 제의에 따르면, 팡덕회는 지원군의 사령원 및 정치위원을 맡고 동시에 주은래를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소련의 군사 원조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sup>45)</sup>

제의에 따라 군사위원회 부주석 주은래가 10월 6일 군위 확대 회의를 소집하여 군사 지도층의 사상을 통일시키고 작전에 필요한 장비의 의견을 청취했다. 군사 지도층이 동의하자 7일, 모택동은 소련 대사를 만나 스탈린에게 그의 기본 관점에 동의하여 얼마 후 9개 사를 조선에 보낼 준비를 하였다. 조선 작전과 소련 원조 문제 등은 주은래와 임표를 소련에 파견하여 스탈린과 상세한 논의를 하겠다고 전하였다.<sup>46)</sup> 그러나 둘째 날, 즉 10월 8일, 모택동은 중국 인민지원군 결성 명령을 정식으로 발표하여 김일성에게 통지했다.

8일 명령 발표 당일, 주은래와 임표가 모스크바에 가서 다음날 흑해 부근 휴양소의 스탈린에게 갔다. 이들은 매우 빨리 대화를 전개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지만, 모택동과 주은래의 회상에 의하면 주은래가 당시 가지고 간 것은 두 가지 의견이었다. 소련의 중국에 대한 신속한 장비 제공, 특히 공중 엄호를 제공하면 출병하고 아니면 출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sup>47)</sup> 스탈린은 이전에 몇 차례 공중 엄호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으

45) 王焰外, 『彭德怀传』(当代中国出版社, 1991), pp. 402~403.

46) 1950년 10월 8일, 편사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10월 8일, 모택동이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建国以来毛宅东文稿』, 第1册, pp. 543~545.

47) 모택동과 주은래는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모택동은 추역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 우리는 단지 공군의 도움만 원했었는데, 그들은 동의하

며, 모택동은 적어도 그리 의심치 않았다. 주은래가 의외로 생각한 것은 즉각 공중 엄호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엄호도 압록강 중국 지역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었다.

북경이 최초로 출병 계획을 세웠을 때 중국 지도층이 염려한 유일한 문제는 공중 엄호였고, 이를 위해 스탈린에게 질문했었다. 출병 준비를 한 지원군 총부 지도층이 당시 강조한 것도 “3개월 내 새로운 장비의 확실한 보장(특히 공군의 출동)이 있으면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였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탈린이 갑자기 말을 바꿔 파문이 야기되었다. 주은래와 임표는 출병의 어려움과 위험을 분명히 했고, 스탈린이 재삼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스탈린은 비로소 16개 소련 지원 공군으로 동북의 후방을 엄호하겠다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것도 2개월 반 이후에나 가능했다. 그래서 중국측의 신속한 출병이 불가능했다. 10월 11일, 쌍방은 북조선 포기를 최종 결정하고 김일성과 정권 및 군대의 중국 동북 지역으로의 잠시 후퇴를 결정하였으며, 북경과 평양에 각각 통지했다.<sup>48)</sup>

이에 모택동은 자못 의외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각 부대 출동의 계획 집행을 잠시 멈추라고 명령하고, 압록강변에서 출병 준비를 하던 고강과 팡덕희에게 상의하기 위해 북경으로 오라는 전문을 보냈다. 13일, 팡덕희·고강이 북경에 도착했다. 모택동은 정치국위원회를 중남해 이년당(頤

---

지 않았었다.” 주은래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소련측에서 공군을 출동시키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군이 없으면 우리 아주 어렵게 된다. 그러나 스탈린은 공군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공군을 파병할 거냐고 물었다. 그(스탈린)는 약간 동요를 하는 듯하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측이 어렵다고 하니 출병하지 않아도 좋다. 설사 북조선을 버린다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사회주의이고 중국도 여전히 존재한다.” 1970년 10월 10일, 모택동과 김일성의 담화 기록. 力平, 『开国总理周恩来』(中央文献出版社, 1995), p. 252.

48) 이번 담화에 관한 기록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담의 경과 상황에 대한 중의 학자, 심지어 중국과 소련의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의 추억까지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는 대체적으로 沈志華 선생의 분석에 동의한다. 沈志華, 『罗申致菲利波夫电』, pp. 266~273을 참조.

年堂)에서 개최하여 새로운 형세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군 지원을 하지 않는 소련에 모두 불만이었다. 다만 김일성이 동북에 망명 정부를 건립하고 미국을 변경에 두는 상황은 역시 생각하기 싫은 것이었다. 반복 토론 후에 모택동은 정치국 지도층을 설득하여 조선 출병은 2개월간 공습으로 손실을 참아야 하지만 가장 뛰어난 선택이라고 일치 동의케 하였다. 이에 따라 모택동은 회의 당일과 다음날, 모스크바에 돌아간 주은래에게 연속으로 세 차례 전보를 보내어, “고강, 팽덕회 및 기타 정치국 동지들이 상의한 결과 역시 조선에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했다”, “적이 압록강변에 이르면 국내·국제적으로 반동 기운이 일어나 각 방면에서 불리하다. 우선 동북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작전 측면에서 “장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괴뢰군과 싸우는 것에 확신이 있다. 소련 장비의 도착도 기다릴 수 있으며 공중과 지상의 우세를 기다려 다시 공세를 하자”, “결론적으로 참전해야 한다. 참전해야만 이익이 크고 참전하지 않으면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며칠 계속 머무르는 주은래에게 스탈린과 상의하라고 요청했다. 첫째, 소련의 차관 방식으로 작전 장비의 원조를 한다. 둘째, 2개월, 늦어도 2개월 반 내에 공군 지원을 하여 “우리의 조선 작전을 돕는다”, 동시에 북경, 천진, 심양, 상해, 남경, 칭해 등지에 공군 엄호를 한다는 내용이다.<sup>49)</sup>

13일, 모택동은 중공 중앙의 이 결정을 로신에게 통지했다. “과거 우리 동지들은 우유부단했다. 그들은 국제 형세, 소련의 군사 원조, 공중 엄호 등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모든 문제는 분명해졌

49) 모택동은 전보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만일 소련측이 두 달 혹은 두 달 반 안에 공군을 보내 우리 지원군의 조선 작전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京·津·廬·寧·青 등 지역에 공군을 보내 보호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공습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모택동이 여기에서 말한 “공군을 보내 우리 지원군의 조선 작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가 소련측에서 지원군이 入朝시 조선 작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 짐을 모르는 것 같았다. 『建國以來毛宅東文稿』, 第1冊, p. 556.

다. 중국은 출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중국의 유일한 요구는 우리를 엄호하는 공군으로 신속히 도달하기 바라며 2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로신에게 전했다. 앞서 경험이 있던 스탈린은 이 편지에 대해 의심했다. 그러나 즉시 이 회소식을 김일성에게 전하고 어제 인민군 철수 전보의 집행을 늦추라고 하였다. “방금 모택동의 전문을 받았다. 그는 중공 중앙이 형세를 재차 토론하여 중국군이 어느 정도의 장비 부족에 상관하지 않고 조선 동지에게 군사 원조의 결정을 통보해 왔다”고 하였다.<sup>50)</sup>

14일, 주은래의 정식 통보를 받고 스탈린은 마음속의 큰 돌을 땅에 내려놓은 듯했다. 몇 년이 지나 진의(陳毅)는 긍정적으로, 스탈린은 당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는 매우 흥분하여 김일성에게 “동요와 임시적 결정을 거쳐 중국 동지는 마침내 조선 출병의 최후 결심을 하였다. 조선에 유리한 최종 결정이 마침내 정해진 것이다. 나는 매우 기쁘다”고 하였다.<sup>51)</sup>

1950년 10월 19일, 팽덕회의 지휘로 지원군 선두 부대 제40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이어 제38, 제39, 제42군도 전부 은폐하여 조선에 들어갔다. 전투 예비대인 제50군, 제66군이 계속 들어갔다. 스탈린은 초조와 긴장 속에서 그의 목적에 도달하였다. 모택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모택동의 입장에서 미국이 압록강변에 있는 것은 결사적으로 면박을 주는 것만 못하다. 필경 그 배후에는 소련의 뒷받침이 있다.

---

50) 위의 책, 제1권, pp. 558~560; 1950년 10월 13일, 로신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10월 13일, 편사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5/1~2; 45/1/347/74~75.

51) 1950년 10월 14일, 편사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47/77.

## 5. 왜 우세를 상실했는가?

8월 초, UN의 역할은 거대하였다. 스탈린은 이번 달 윤번으로 안보리 주석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UN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이 이미 형성한 결정과 경향을 바꿀 생각을 하였다. 당연히 UN 안보리 거의 모든 구성원국은 조선 문제에 대해 일련의 정식 결의를 한 후였다. 소련의 이런 외교 노력은 주효하기 어려웠다. 이 기간 모스크바가 얻은 유일한 외교 진전은 안보리 9월 29일 미국의 대만 침략 문제 의안 토론에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시기 조선 전세는 전면 악화되었다.

1950년 10월 19일, 지원군이 조선 출병한 후 전쟁 상황은 중조에 유리했던 방향에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지원군이 압록강변의 한미 군대를 평양 일선으로 몰아냈다. 그 후의 전투에서 미군 위주의 UN군을 38선까지 쫓아냈다. 두 차례 전투에서 UN군은 300km를 철수하였고 2만의 손실을 입었으며 제8집단군 사령은 철수중 차가 뒤집혀 사망하였다. 이 시기 한국전쟁은 한 번의 접전을 남겨둔 듯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쌍방은 비겼다고 할 수 있다. 남북조선의 군사력 손실은 막상막하였으며 남조선측의 연합군과 북조선측의 지원군 손실도 비슷했다. 전선은 이미 최초의 기점으로 되돌려졌다. 한국전쟁은 다시 중요한 시점에 돌입했다.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12월 5일, 지원군이 전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인도를 중심으로 한 11개 중립국 정부가 연명으로 북경에 호소하였다. 중국과 북조선 군대가 38선에서 멈출 것을 요구하며 전쟁을 끝맺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도와 영국은 UN 대표로 적극적 활동을 하여, 한편으로 UN에 도착한 중국 대표 오수권과 빈번히 접촉하여 중국측의 정전 조건을 청취하였고, 한편으

로 UN 회의 의장 등 3인 위원회가 조선 정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건의하여 선정전 후대화를 제의하였다. 정전 대화의 문제는 의사 일정에 포함되었다.<sup>52)</sup>

정전 요청이 있기 전 소련 주재 중국 대사 왕가상은 이미 지시를 받아 소련 정부에 문의하려 했다. 현재 정세에서 미국이 정전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원군이 38선을 넘을 수 있는가 등이다. 소련은 UN 주재 대표 비신스키를 파견하여 조선의 군사 행동 정지에 찬동한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12월 5일, 왕가상과 소련 외상 그로미코와의 회담에서 그로미코는 오히려 첫째, 현재 미국측은 평화적인 조선 문제 해결의 뜻이 없다, 둘째, 현재 전세가 유리하므로 지원군은 당연히 “뜨거울 때 쇠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sup>53)</sup> 소련 중앙정치국은 그 후에도 비신스키의 조선의 정전 실현 건의를 부정하였다. 모스크바는 전보에서 현재 정전 제의는 대부분 미국의 전쟁 실패 국면을 만회하려는 원병(援兵) 계획일 뿐이라고 지시하였다.

모스크바의 답변은 모택동의 생각에 부합했다. 전쟁이 상상 밖으로 순조로워지자 그는 미국을 조선에서 몰아내려 했다. 따라서 출병을 반대할 때 조심스러웠으며 적 섬멸의 욕심은 갈수록 커졌다. 11월 초, 지원군의 조선 작전 제1차 전투가 막 끝났다. 소련의 무기 장비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미군 4, 5개 사를 전멸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의하였다. 심지어 결론으로 “미군은 장개석의 군대보다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11월 중하순,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낸 때를 포함하여 그는 자신 있게 적에게 한두 차례 큰 타격을 주면 우리는 방어에서 진격으로 바뀔 수 있다,<sup>54)</sup> 따라서 중국은 정전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52) 彼得·卡爾天科西雷, 王希榮外譯, 『国际事务概览, 1949~1950』(上海译文出版社, 1991), pp. 670~672.

53) 1950년 12월 5일, 그로미코와 王稼祥의 회담 일기 적록, APRF, 3/65/371/35~37.



하였다.

주은래는 12월 7일 새벽 3시, 소련 대사에 통지하여 중국 정부는 인도에 조선 군사 행동 정지에는 UN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 모든 외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한다.
2. 미군은 대만 해협과 대만도에서 철수한다.
3.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 스스로 해결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UN에 참가하고 UN에서 장개석의 대표를 축출한다.

5. 4대국 외상 회의를 소집하여 대일화약(對日和約)을 준비한다.<sup>55)</sup>

여기에서 중국측은 어떤 대화를 하려 했으며, 대화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가 일목 요연하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은 찬찬히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서 주은래에게 “우리는 조선 정전의 조건에 동의한다. 단, 이런 조건으로 군사 행동을 정지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서울은 해방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자기 패를 내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순 이용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측은 군사 행동 정지에 공개적으로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 구체적 조건을 요구하여 공을 넘겨라.<sup>56)</sup>

12월 9일, 스탈린의 전보 내용에 의거해 오수권은 인도 대표 등에게 UN과 미국의 정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건의를 제출하는 태도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 일은 중립 국가의 격려를 받았다. 긴장된 상황에서 인도 등 국가가 제출한 정전안은 14일 UN 대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후 성립된 정전

---

54) 『建国以来毛宅东文稿』, p. 640, 658, 678, 687, 689.

55) 1950년 12월 7일, 로신이 모스크바에 보낸 전보문, APRF, 3/65/336/17~19.

56) 1950년 12월 7일, 그로미코가 주은래에게 보낸 전보문 ; 1950년 12월 8일, 주은래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보문, APVRF, 059a/5a/3/11/196~197 ; 13.

3인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전보를 보내 중국과 정전 문제의 대화를 원한다고 하였다.

지원군의 작전은 실제 이 시기에 약점이 노출되었다. 제2차 전투 부대는 인명 손실(주로 동상)이 컸다. 운송 손실도 심각하였고, 보급선도 길었으며, 병력 및 물자 보충도 어려웠다. 팽덕회는 평양을 점령한 이틀 후, 즉 12월 8일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내 잠시 38선을 넘지 말고 충분한 준비 후 내년 봄에 개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택동, 스탈린, 북조선을 막론하고 멈추는 것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 특히 UN에 성립된 정전 위원회는 38선 분계선을 회복할 뜻이 있어 잠시 공세를 38선상에 멈추자고 하였으니 우연찮은 말이 진담이 되었다. 제2차 전투가 끝났을 때, 부대가 계속 남으로 추격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 주재 소련 대사는 이미 팽덕회와 논쟁을 벌였다. 정말 그만둔다면 중·소·조 3방 내부에 의견 충돌이 야기된다.<sup>57)</sup> 따라서 모택동은 전문을 받자 곧바로 팽덕회에게 “현재 미영 각국이 38선 이북에서 아군의 정전을 요구하여 군을 정비해 다시 전투하려 한다. 따라서 아군은 반드시 38선을 넘어야 한다. 38선 이북에서 멈춘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자본주의 각국의 많은 추축을 야기시켜 민주 전선 각국에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sup>58)</sup>

이 당시 모택동은 모종의 소식을 들었다. 즉, 미국은 중국의 조선 간섭안을 UN 대회 의사 일정에 첨부하여 중국을 피고석에 앉히려 하였다. 미 육군 참모장 케렌스는 일본과 조선 전선을 시찰하고 미군은 장기 방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미국 참모장 연석 회의에 미군의 철수 준비를 건의하였다고 말했다. 미국을 조선에서 몰아내려는 모택동을 격려하는 것이

57) 徐焰, 『金門之戰』, p. 62 인용.

58) 1950년 12월 13일, 모택동이 고강에게 보낸 전보문; 1950년 12월 29일, 모택동이 고강에게 보낸 전보문, 『建國以來毛宅東文稿』, 第1冊, p. 722.

었다. 스탈린도 모택동의 견해를 긍정하여 현재 38선을 넘으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능동적으로 지원군에게 2,000량의 자동차를 제공하여 팽터희에게 후환의 우려를 덜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군은 제3차 전역을 준비하고 대거 38선을 넘어 전세는 진행되었다.

12월 22일, 지원군이 제3차 전투를 준비할 때 주은래는 명령을 받아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UN의 정전 제의를 거절하였다.

제3차 전투는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8일까지 계속되었다. 중조군은 미군 보급기지 인천항과 서울을 점령했고, 전선을 평균 100km 전진시켜 거의 37선에 이르렀다. 이 국면으로 UN 내에서 정전의 소리가 확장되었다. 미국 정부 지도층도 계속 전쟁에 대해 동요를 일으켰다.

1950년 12월 29일, 미국 참모장 연석 회의에서 맥아더에 보내는 비밀 지시를 통과시키고 전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대를 조선에서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지원군의 제3차 전투는 참모장 연석 회의의 우려를 거의 증명하였으며, 의장 브레들리는 분명히 “당시 워싱턴 지도층의 마음은 모두 목구멍이 눈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sup>59)</sup> 그들은 한편으로 맥아더에게 조선에서의 철수 준비를 하게 하고, 한편으로 조선 정전 3인 위원회에 1월 11일 갑자기 영국 등 국가의 동의를 얻은 조선 문제의 평화 해결 5개 방안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후에 이 상황을 회상하면서, 미국은 중국 간섭 문제를 UN 대회 의사 일정에 넣어 중국을 ‘침략자’의 피고석에 앉히려 노력했지만, 군사적 실패와 인도 등 중립국의 정전 호소로 미국은 진퇴유곡에 빠졌다고 인정했다. UN 다수의 지지를 잃게 될 우려에서 국무성은 고심 끝에 3인 위원회와 평화 해결 방식 5개항을 지지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이 결의를 거절하리라 믿고 바란다. 따라서 우리

59) 齊德學, 『朝鮮戰爭決策内幕』, pp. 113~114 인용.

맹국이 비교적 분명한 입장으로 돌아와 우리를 좇아 중국을 침략자로 견책해야 한다”고 했다.<sup>60)</sup>

1월 13일, 미국이 찬성표를 던지자 UN 제1위원회는 5개 방안을 순조롭게 통과시켰다. 즉, ① 정전의 즉각 실현, ② 1차 정치회의를 거행하여 평화적으로 택한 진일보한 조치를 회복하도록 안내한다. ③ 외국 군대는 단계적으로 조선에서 철수한다. UN의 통일 정부 건립에 관한 결의를 실현하는 조치를 취한다. ④ 제3조를 진행하기 전에 조선을 관리하고 조선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임시적 방법을 제정한다. ⑤ 미국·영국·소련·중국 4국 대표회의를 열어 극동 문제를 논의하고 그 중에 대만 문제와 중국의 UN 대표권 문제를 포함한다.<sup>61)</sup>

애치슨이 외국 군대 철수에 찬성을 표시한 것은 긍정할 만하다. 특히 대만 문제와 조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미국 지도층이 당시 조선 군사 국세에 절망한 결과이다. 중국측이 UN의 제의를 받아들일기로 공개 표시하였다면 손해보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 필경 5개 방안 중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 해결과 대표권 문제는 모두 중국이 꿈에도 바라는 것으로 미국에 불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의 약 40만 지원군 작전 부대는 3차례 전투로 10만 가까이 줄었으며, 특히 남으로 전진하면서 보급선이 500km에 달해 400km는 공군 엄호가 없었다. 3차례 전투는 모두 사이가 없어 사병은 피로하고 식량과 탄약 공급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부대의 연속 작전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전 제의를 접수하면 정전선은 서울 이남 37선에 두게 되고, 부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일부 부대는 방금 운송해 온 현대화된 소련식 장비로 무장할 수 있었다.<sup>62)</sup> 그러나 모택동은 다른 견해

60) 艾奇遜, 『艾奇遜回顧錄』(上海譯文出版社, 1969), p. 381.

6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Vol. 7(1951), p. 61.

62) 齊德學 선생은 “미국이 진정으로 휴전을 원하지 않는 이상, 담판의 기회 문제란 있을

였다.

제3차 전투 기간의 적은 퇴각이 신속하였다. 모택동은 이전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었다.<sup>63)</sup> 그가 보기에 적은 손을 쓸 여력이 없었으며 그 다음은 “저항이 미약해지고 그런 후에 남조선에서 철수한다”, 혹은 “부산, 대구 지역에서 저항하다가 저항이 무의하다고 믿게 되면 남조선에서 철수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다시 싸우면 대세는 정해지는데 미국과 조선의 정치 해결을 흥정할 것인가?<sup>64)</sup> 하물며 UN 5개 방안은 중국에 유리하지만, UN이 제정한 조선의 통일 정부 건립에 의거한 UN의 권리를 인정하고 UN의 조선 관리를 승인해야 한다. 북조선도 동의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동의를 얻은 후 주은래는 1월 17일, UN 대회 제1위원회 주석에 전문을 보내어 5개 방안을 거절했다. 인도 등 중립 국가가 주은래 전보에 제안된 대화 조건과 5개 방안이 접근할 여지가 있어 재차 수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은 이미 이 문제를 부연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 대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이 전쟁에 광분해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조선 침략안을 신속히 제출하였다. 2월 1일, UN 대회는 미국이 제출한

---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이 5단계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徐焰의 견해에 동의한다. 즉 그 당시 연합국의 건의를 이용하여 휴전을 실행하였다면, 이미 점령하였지만 아직 공고하지 못한 기반을 점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휴전이 실패하더라도 보귀한 시간을 얻어서 다시 진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웠을 것이다. 齊德學, “关于抗美援朝战争的几个问题—兼谈如何看待和运用俄罗斯已解密的朝鲜战争档案问题”, 『中共党史研究』, 第2期(1998); 徐焰, “朝鲜战争研究”, 『当代中国史研究』, 第1期(1994).

63) 1950년 말~1951년 초 연합군이 궤멸하여 궁지와 혼란에 빠진 사실에 대하여, 李奇微 장군의 회고록과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전쟁사』에 모두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서술되어 있다. 李奇微, 军事科学院外国军事研究部译, 『朝鲜战争』(军事科学出版社, 1983), p. 109; 김양명, 『한국전쟁사』(서울: 일신사, 1976), p. 211.

64) 1951년 1월 15일, 모택동이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보문; 1951년 1월 16일, 모택동이 팽덕회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APRF, 3/1/336/31~32.

중국의 '침략'을 견책하는 제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미군은 퇴각에서 대규모 진공으로 전환하였다.

엄격히 말해서 모택동은 미국을 바다로 몰려는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북조선의 실패는 미군이 강하다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출병 전의 쌍방의 장비와 화력의 차이에 대한 우려는 지원군에게 "미영군은 잠시 피하라(가능하면)"고 재삼 당부하게 했으며, 남조선군을 먼저 공격하고 나서 "미국과 외교 담판을 하겠다"고 하였다.<sup>65)</sup> 지원군의 처음 승리는 모택동의 승부욕을 자극하였고, 조선에서 그의 '종이 호랑이' 이론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는 혁명 철학을 증명하고 싶어했다.<sup>66)</sup> 그는 양군의 장비, 화력 등의 차이를 잇고 '정의의 군대' 역량을 믿어 부대의 용감성과 민첩한 전술에 의지해 "아군은 고도의 우량 장비와 제공권을 가진 미군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병력을 집중하여 일거에 미군을 섬멸하고 심지어 몇 개 사의 주력을 섬멸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sup>67)</sup> 이런 심리 속에서 모택동은 본래 중국에 극히 유리한 외교 조정인 UN 안을 거절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명정한 미국인과 한국전쟁에서 싸워 어렵게 얻은 1차 공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미 획득한 군사 승리를 유지해 나갔다.

---

65) 『毛宅东军事文集』, 第6卷(中央文献出版社·军事科学出版社, 1993), pp. 140~141, p. 160, 163, 165.

66) 1946년 모택동은 미국 기자 안나·루이스·스터랑과의 담화에서 저명한 '종이 호랑이(紙老虎)' 이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모택동은 "일체 반동파는 모두 종이 호랑이이다. 단지 그 모양이 사람을 놀라게 할 뿐이다. 반동파에 대해서, 전술상에서는 중시하여야 하지만, 전략상에서는 멸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이론은 사실상 모택동의 또 다른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즉 모든 새롭게 탄생한 약소한 사물은 모두 가장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 약소한 사물은 필연코 강대한 적을 전승할 것이라는 이론).

67) 『毛宅东军事文集』, 第6卷, p. 191, 200, 213, 217, 243.

## 6. 형세의 역전, 정전은 피할 수 없었다

지원군 최초의 승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왔고, 준비가 없는 곳을 공격한다”는 기초에서 건립되었다. 후방이 너무 멀어 부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으므로 제3차 전투는 매우 어려웠다. 부대의 전진은 UN군과 남조선 군대의 공황과 궤멸에 도움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전에 투입된 6개 군 장비가 낙후되었고 소모는 많은데 보충은 적었다. 근 3개월을 연속 작전하여 인명 손실이 심각했고 피로가 과도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여전히 전쟁으로 철저히 조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sup>68)</sup>

1951년 1월 25일, 지원군은 휴식 기간이었다. 미군 위주의 UN군은 서울 방향으로 탐색적 진공을 시작하였다. 제4차 전투는 여기서 터졌다. 미군이 지원군의 식량과 탄약이 일주일치에 불과함을 명확히 알고(이른바 일주일 공세), 장비가 대부분 야간 전투에 의지해 미군의 장갑 방어(이른바 달밤의 공세)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지원군의 탄약과 식량을 소모하도록 전문적으로 이용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작전 능력이 다해갈 무렵 대거 반격하였다. 지원군의 조선 작전 이래 첫번째 좌절이었다. 이 전투에서 지원군은 한미군에 대량의 살상을 가했고 심지어 2월 중순 횡성 반격에서 한미군 8,000명을 포로로 잡았으나, 지원군은 5만을 잃었고 금방 점령한 인천과 서울을 포기하였으며, 전 전선에서 100km 후퇴하고 다시 38선 이북으로 물러났다.

미군의 반격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택동은 자신의 전세의 낙관을 의식하여 지원군의 윤번 작전으로 부대의 피로와 보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적의 대량 소멸로 조선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

68) 杜平, 『在志愿军总部』(海防军出版社, 1988), p. 192.

다”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sup>69)</sup> 그 후 팽덕회는 북경에 돌아와 지원군 병력 및 보급 등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고하였다. 모택동은 3월 1일,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이미 보았듯이 조선 운송로가 너무 길어 공중 엄호가 없으면 30~40%의 보충 물자가 폭격으로 전선에 도달할 수 없다, 게다가 조선의 9개 군 가운데 10여 만이 줄었고 3개 군은 작전 능력이 없다, 전선에서 작전중인 6개 군도 보급 부족과 인원 부족으로 미군 진공에 저항하기 어렵다, 따라서 38선 후퇴는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미군의 화력 우세는 대량 보충받을 수 있고 “한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적어도 2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수년 내에 미군 몇십 만을 섬멸하여, 미군을 조선에서 철수시켜서 조선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모택동보다 더 이 전쟁의 승리를 갈망했다. 그는 38선에서의 후퇴를 동의하지 않았었다. 특히 인천과 서울의 포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택동이 토로한 어려움은 상당 부분 소련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공군 문제로, 처음에 스탈린은 공군이 압록강을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지원군의 전선이 전진 확대되자 소련 공군도 엄호 범위를 청천강 이북의 조선 경내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청천강 이남에는 공중 엄호가 전혀 없었다. 청천강 이북에서 미국이 소련 참전의 증거를 잡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소련은 조종사들에게 까다로운 규정을 정하여 주었다. 예컨대, 러시아어를 사용한 연락을 할 수 없으며, 해상을 비행할 수 없고, 미국인 수중에 추락하지 말 것 등이다. 따라서 공중 엄호 지역의 효과는 이상적이지 못했다.<sup>70)</sup> 공중 엄호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 군대는 전선에서

69) 齊德學, 『朝鮮战争决策内幕』, pp. 132~133.

70) 소련 공군의 공중 엄호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John Halliday가 깊이 연구한 적이 있다. 哈利迪, “朝鮮空战: 苏联方面的故事”, 『朝鮮战争研究的新材料新观点』, pp. 212~228 인용.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식량과 탄약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작전은 싸우다 멈추다 하였다. 미국은 지원군의 작전 방식을 이해하자 장비의 우세를 이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 상황에 직면한 스탈린은 더 많은 원조를 결심하였다. ① 중국 동북 안동 지역에 2개 소련 요격 기사를 조선 경내의 비행장으로 옮기기로 계획을 세워 “전선의 전투 속에서 그들을 이용한다.” ② 소련이 대형 요격 기사를 안동 지역으로 돌려 먼저 있던 2개 소련 요격 기사의 공중 방어 임무를 대체한다. ③ 조선에 몇 개 비행장을 건설하여 급속 포장, 고사포와 기타 필수 물자를 제공한다. 소련 요격기 조종사가 충분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빈번한 공중 작전을 진행하고, 전투사의 편제는 전문적으로 조선 작전에 진입하는 각 요격기마다 10개 후방 조종사를 준비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중국에 모두 372대의 최신형 미그-15 제트 요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6개 미그-9 요격 기사를 다시 무장하게 하였다. 소련 원조로 건립된 10개 중국 요격 기사는 전부 풍부한 전투력을 갖춘 공군사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스탈린은 중국측에 다시 6,000량의 자동차를 제공하여 지원군 후방의 지원을 만족하게 하도록 긴급 동의했다.<sup>71)</sup>

모택동과 중공 중앙의 조선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결 전략 목표가 바뀌지 않자 소련이 답변했던 37개 보병사의 장비와 기타 중형 무기가 계속 도달하였고, 새로이 진입한 부대 대부분은 비교적 앞선 소련식 무기로 바뀌었다. 또한 소련 화포를 사용하는 4개 포병사와 4개 고사포사가 조선에 진입하여 지원군의 각종 화포의 수량은 6,000문 정도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4차 전투가 끝나자 중공 중앙은 진정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중앙은 분명히 “한국전쟁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단기에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면, “승리를 빨리 할 수 있으

71) 1951년 5월 22일·5월 26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7 /118 ; 45/1/338/87, 91 ; 3/65/828/140~142.

면 빨리 승리한다. 승리를 빨리 할 수 없으면 늦게 승리한다”이다. 그 결과 새로운 제5차 전투는 처음으로 38선 지역에서 적을 타격하기로 결정하였고, 전투가 개시되자 오히려 매우 빠르게 확대된 욕심으로 37선 이남까지 타격하자고 주장했다.<sup>72)</sup>

제5차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팽덕회는 전쟁 형세가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군이 지원군의 작전 방침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화 정도와 화력의 강한 우세를 이용하여 협동으로 엄호하고 조금씩 후퇴하여 지원군이 운동전의 특징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거의 적을 잡을 수 없었다. 부득이 그는 작전 목표를 바꾸기에 바빴다. 모택동도 형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팽덕회에게 작은 승리가 큰 승리가 된다고 당부하는 전문을 보냈다. 미군과의 작전마다 전과가 크지 않더라도 1개 영 정도를 섬멸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적을 섬멸하기 위해 미군을 북으로 끌어들이 타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단지 적이 평양~원산선을 점령하지 않으면 되었다. 그러나 인민군의 참패가 있자 북조선과 모스크바는 지원군의 후퇴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스탈린은 직접 나서서 모택동의 전술에 간여하여 모에게 당신들은 전선 후방에서 강력한 방어 작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신들의 계획을 간파하였다, 북으로 전진하면서 길마다 자신의 방어선을 쳐서, 그때 지원군이 공세로 바꾸려 한다면 거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sup>73)</sup>

스탈린의 의견은 도리에 맞았다. 지원군은 전선 후방에서 확실히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지 않았다. 일단 적이 강력한 장갑 부대로 후방에 끼어들면 매우 위험하였다. 모택동은 팽덕회에게 전문을 보내 제5차 전역을 시작할 경우 방어선을 지키는 기초에서 소규모 섬멸전을 해야 하며,

72) 齊德學, 『朝鮮戰爭決策内幕』, pp. 14~145.

73) 1951년 5월 27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1년 5월 29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8/95~97, 98~99.

동시에 이 방어선 이북에 제2차 방어 진지를 구축하여 만일을 준비하라고 하였다.<sup>74)</sup> 그러나 지원군은 시간에 맞춰 방어선을 구축할 예비대의 안배가 없었으며, 미군은 대거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원군의 전 전선은 40km 정도 후퇴하고 비로소 적의 전진을 간신히 저지하였다. 전투는 분명히 다시 좌절을 맛보았으며 손실이 심각하였다. 지원군의 전선이 이번에는 앞으로 연장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전투 시작 때보다 평균 10여 km 후퇴하였다. 특히 전투 2단계에서 2개 군의 병력은 적에 포위당해 위태로운 전멸에 당면했다. 최후에는 1개 사, 즉 제3병단 60군 180사는 복귀하여 유지될 수 없었다. 이 전투에서 지원군 1만 7,000명이 포로가 되어 한국전쟁에서 지원군 포로 인원의 80%를 차지했다.

제4차, 특히 제5차 전투의 실패는, 지원군이 미국 군대를 조선에서 몰아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5월 하순, 제5차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공 중앙 군사위원회가 전선 상황을 토론하면서 개전시의 우세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병력에 의거한 승리를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을 때는 전선에서 후방까지 총 130만 지원군이 조선에 진입하였으나 실제 작전 역량은 강화되지 않았다. 상반되게 보급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특히 작전 지역이 좁았고 도로가 좁아 대륙에서의 작전과 달랐다. 전선 병력은 많아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도처에 무리를 이루어 어떤 경우는 도리어 적의 비행기와 대포 포격의 과녁이 되어 많은 사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38선에서의 전투를 멈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수가 재차 공격은 단시일 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며, 장기화될 경우 재정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sup>75)</sup>

중공 중앙이 생각지 못한 것은 미국도 당시 계속적인 전투의 어려움을

74) 1951년 5월 31일, 모택동이 팡덕회에게 보낸 전보문,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2册, p. 344.

75) 聶荣臻, 『聂荣臻回顾录』(下), pp. 741~742 인용.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1년의 전쟁 동안 미국이 조선에 쏟아부은 직접적인 전비는 100억 달러 정도였고 사상자는 10만 명에 가까웠다. 제5차 전투의 상황에 따르면 1km 전진할 때마다 수백 명의 사상이 났다. 맥아더를 대신한 UN군 사령 리지웨이는, 압록강으로 전진하려면 다시 10만 명의 사상자 외에 반드시 끊임없는 전쟁에 빠져들게 되어 미국에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인식하였다.<sup>76)</sup> 4월 5일, 미국 참모장 연석 회의에서 결론을 맺었다. “군사 행동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5월 17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전위원회의 이 결정을 비준하였다. 즉, 조선에서의 적대 행동에 중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31일, 참모장 연석 회의는 리지웨이에게, 중조 군대가 심각한 희생을 치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전 협정을 체결하여 적대 행동을 멈추기”를 위해 노력하라고 정식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sup>77)</sup> 이어서 전 소련 주재 미국 대사 케넬에게 UN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를 만나 정전의 가능성을 묻게 하였다.<sup>78)</sup>

6월 2일, 모택동은 케넬이 5월 31일 말리크에게서 미국이 조선을 끝맺는 대화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군사적으로 불리한 국면과 당내의 의견 때문이라도 모택동은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과 조선의 태도를 알기 전에는 자못 주저하였다. 6월 4일,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보에는 정전 문제의 고려를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제5차 전투의 불리한 상황과 화력 열세의 현황을 설명하고, 완곡하게 현재 형세에서 한국전쟁의 가속화는 불가능하며, 아마도 지구적인 소모전을 준비해야 하고 지원군은 반격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만 38선 부근에서 믿음직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표명했다.<sup>79)</sup>

76) 李奇微, 『朝鮮戦争』, pp. 152~153 인용.

77) Omar N. Bradley, & Clay Blair, *A General's Life: An Autobiography*(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 840.

78) FRUS, Vol. 7(1951), pp. 483~486, 507~511 참조.

79) 1951년 6월 4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9/4~6.

스탈린은 분명히 정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철저한 승리라는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5일, 모택동에 보내는 회답 전문에서, “나는 당신처럼 지구전은 첫째, 중국군이 실전에서 현대 전쟁을 학습할 수 있고, 둘째 미국 정부를 동요시키고 미국 군대의 군사 신화를 깰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빨리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신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즉 현재 계획대로 후방에 강대한 방어선을 구축하며 적 후방의 유격대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포와 필수 무기를 갖추면 상황은 개선된다고 격려했다. 또 당신이 지원군 대포와 반탱크 무기가 적다고 했는데 2개월 전에 내가 새로운 대포와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왜 시종 명세서를 주지 않는가, 하고 힐책했다. 그가 보기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게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몇 차례 철수로 지원군의 사기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적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준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3, 4개 사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이런 불건전한 정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sup>80)</sup>

그러나 스탈린의 전보와 동시에 모택동은 북경에 온 김일성과 회담을 하였다. 김일성도 이미 미국이 대화에 뜻이 있다는 상황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 두 차례의 전투를 거치면서 그는 무력을 통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김일성 스스로 이처럼 주장하자 모택동은 자연 정전 문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5일 저녁, 스탈린에게 또 다른 전보를 보내 고강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우리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알리고 지시를 청했다. 스탈린의 동의를 받자 모택동은 첫번째로 전보에서 중공 중앙이 정전 의향이 있음을 암시했다. 9일의 전보에는 스탈린에게 고강의 이번 방문은 우

80) 1951년 6월 5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APRE, 45/1/339/17~18.

리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생각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1)</sup> 당연히 연구자들은 모택동은 진공을 포기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sup>82)</sup>

6월 13일,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고강과 김일성의 조선 문제 진행 보고서를 청취하였다. 그는 중국측이 제출한 60개 사의 무기 장비 보충에 관한 신청 명세서와 모택동이 제출한 팽덕회를 군사 고문으로 파견하는 요구에 시원스레 답변하였다. 아울러 고강에게 지원군의 장비는 적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다, 반드시 탱크와 화포의 수량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고강이 중공 중앙을 대표하여 38선을 경계로 정전 대화를 하는 문제를 제출하자 스탈린은 매우 불안해하였다. 그는, 당신들은 현재 잘 싸웠는데 왜 정전하려고 하는가, 전쟁의 지속을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나는 미국의 심리를 안다, 너희 여러 명이 한 명의 미군을 죽이면 그들 대부분은 국내로 판을 보내온다, 그들 국내는 이 전쟁을 반대하는 압력이 갈수록 커지며 최후 정전을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미국인이라고 격려하듯이 말했다. 고강과 김일성이 중조측이 직면한 어려움을 거듭 해석하자 스탈린은 최종적으로 양보하였다. 너희들이 정전 하겠다면 좋다, 한번 해봐라, 아마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회담 후에 모택동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스탈린은 간단하게 한 구절 언급했다. “우리는 현재 정전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sup>83)</sup>

---

81) 1951년 6월 5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1년 6월 7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1951년 6월 9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9/23, 26, 28~29.

82) Weathersby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그 당시 휴전을 주장한 것은 단지 군대를 휴식시키고 정비와 보충을 하여 다시금 진공을 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글에서는 스탈린과 모택동 사이의 상이한 관점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판 문제상에서 견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확실한 설명이 없다. Weathersby는 주로 1951년 6월 13일, 모택동이 고강·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9/57~60; 1951년 6월 13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9/47 등을 이용함. Kathryn, Weathersby, “China’s Strategy to End the Korean War”, *Conference on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in Asia*(Hong Kong : 9~12, January, 1996).

6월 23일, 모택동의 요구에 따라 말리크는 UN 연설 발표의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의 “교전 쌍방은 정전과 휴전 대화에 응하고 쌍방 군대를 38선에서 철수시킨다”고 제의했다.<sup>84)</sup> 25일 중미 쌍방은 모두 비정식으로 평화 회담의 의향을 표시했다. 이어서 소련측의 건의에 따라 교전 쌍방의 전선 사령관이 6월 30일과 7월 1일 직접 정전 대화 문제의 의견을 교환하여 정식으로 쌍방 군사 접촉선에 위치하는 중조측의 개성을 대화 지점으로 확정하였다. 그 후 7월 10일, 정전 대화가 시작되었다.

대화가 시작되면서 중국측은 과거 가장 관심 있었던 문제를 포기해야 했다. 즉 대만 문제와 UN에서의 중국의 합법적 지위 문제 등이다.<sup>85)</sup> 사실 케넌은 말리크와의 회담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대화 내용에 삽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표시하였다. 현실적인 군사 형세는 중국이 이를 위해 미국과 흥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중조측이 제출한 모든 외국 군대가 기한 내에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제의를 포함한다. 1951년 1월 13일 미국이 찬성 투표를 했던 5개 방안에 비교해서 이는 상당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화가 시작되자 38선을 경계로 하는 문제마저도 미국측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미국인의 해석에 따르면, UN군이 현재 점령한 38선 이북의 면적은 중조측이 점령한 38선 이남의 면적보다 많았으며, 미국은 해상과 공중에서 절대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공(海空)의 보상”을 고려하였으며, 중조 군대는 실제 군사 접촉선에서 다시 후퇴하여 군사 완충 지역의 한계를 확정해야 했다. 쌍방은 이를 위해 1개월여 동안

83) 1951년 6월 13일, 필리포프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문.

84) FRUS, 1951, Vol. 7, pp. 546~547; 1951년 6월 13일, 모택동이 고강·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APRF, 45/1/339/57~60.

85) 모택동은 처음에 연합국의 의석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땅히 대만 문제를 흥정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의 모택동이 고강·김일성에게 보낸 전보문 참조.

논쟁하였다. 최종적으로 8월 23일, 대화 결렬이 발표되었고 쌍방은 대치 상태로 되돌아갔다. 약 2개월 후 미국은 군사 수단을 이용해 전진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고 비로소 원래의 요구를 포기했다.

10월 25일, 쌍방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중조측도 “쌍방의 실제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고 이 선에서 각기 2km 후퇴하여 비군사 지역을 세운다”고 결정하였다. 미국측도 동의했다. 이렇게 쌍방은 1951년 11월 27일, 군사 분계선 문제를 원칙으로 타협에 이르렀다.

그 후의 대화는 의외로 전쟁 포로 문제에서 막혔다. 본래 모택동이건 스탈린이건 모두 매우 낙관적으로 “그 문제는 의견 일치가 어렵지 않다”, “적이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었다.<sup>86)</sup>

중조측은 전쟁 포로 전부의 귀환을 견지했으며 미국과 남조선은 “자원 귀환”을 견지하여 쌍방이 달리 주장하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한국전쟁은 장시간 정전할 수 없었다.

전쟁 포로 문제의 관건은 쌍방 포로 수의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쌍방이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미측의 조선적 포로는 11만 2,000명, 중국적 포로는 2만 800명이다. 중조측의 포로가 된 포로는 미영적은 4,417명이고 남조선 포로는 7,142명이다.<sup>87)</sup> 자원 귀환을 확정하는 원칙은 포로가 UN보다 많은 중조측에 매우 불리했다. 처음에 UN측은 7만 명의 귀환에 동의했으며 그 중에는 중국인이 매우 적었다. 1952년 7월 13일, 미국은 비로소 UN이 동의한 귀환 포로 수를 8만 3,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86) APRE, 45/1/342/16~19, 100.

87) 중국측의 연합군과 한국의 포로군 인수가 적은 원인 중의 하나는, 중공 역사상의 전통에 의하면, 모든 전쟁중에 잡은 포로는 대부분 그 족석에서 석방하거나 혹은 부대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지원군이 入朝해서 작전을 시작했을 때, 모택동은 포로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지시를 바라지말고 그때그때 즉시로 분할하여 놓아주라”고 명령을 내렸다. 후에 조선측의 요구에 따라 남한측의 포로는 대부분 인민군에 편입되었다. 1950년 11월 18일, 모택동이 팽덕회·등화·박일우에게 보내 고강에게 알려준 전보문, 『建国以来毛宅东文稿』, 第1册, p. 672.



그 중 6,400명만이 중국인으로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7만 6,000명은 모두 북조선인이었다.

미국 공군은 시종 북조선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북조선이 얻을 수 있는 포로 수도 실제 포로가 된 전쟁 포로 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 병력과 인력이 부족한 평양측은 이에 대한 해결 문제를 바랐다. 그러나 모택동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적이 오만하여 우리를 손상시키려는 형상”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분명히 모택동을 지지했다. 그는 분명히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는 주은래에게 “모택동이 맞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원기를 꺾었다. 북조선은 전쟁에서 희생을 입은 외에 어떤 것도 진 것이 없다”고 하고 명확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해야 한다. 중국 동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면 중국은 영원히 대만을 회복할 수 없다. 미국은 상인일 뿐이다. 각 미국 병사는 모두 투기상이며 매매를 한다. 독일은 20일 만에 프랑스를 점령했다. 미국은 이미 2년간 싸웠으나 조그만 조선에 대처하지 못했다. 무슨 실력이 이런가”라고 했다. “당연히” 스탈린은 “조선인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다”, “조선에 대해 반드시 돕고 지지해야 한다”, “조선을 위해 우리는 일체를 아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쟁 포로의 대화 전략에 대해, 스탈린은 전쟁 포로의 비례 교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미국인은 어느 정도 비례의 전쟁 포로를 억류하고 있는가, 중조측도 어느 정도 비례의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가를 선포하라. 이처럼 되지 않으면 중립국의 조절을 고려하여 먼저 정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sup>88)</sup>

전쟁 포로 문제로 난국에 빠지자 정전 대화는 1952년 10월, 장기 휴회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은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돌연 사망한 이후에

---

88) 1952년 7월 18일, 모택동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보문; 1952년 8월 20일, 스탈린과 주은래의 회담 기록; APRF, 45/1/343/72~75; 45/1/329/54~72, 91~101.

바뀐다.

스탈린 이외에 소련 중앙 지도층은 일찍이 멈출 수 없는 한국전쟁에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차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스탈린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어 몰로토프는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이어졌고 소련 및 중·조 양국에 모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현재 이미 이 전쟁을 즉시 정지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제안했다. 소련 부장 회의는 이어서 상응하는 결정을 내렸다.<sup>89)</sup> 이처럼 모택동은 독자적으로 모든 포로의 귀환 입장을 견지할 수 없었다. 매우 빠르게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이른바 “자원 귀환” 원칙을 조건부로 받아들일겠다고 표시했다. 또 일련의 교섭이 경과하면서 쌍방은 마침내 1953년 6월 8일에 포로 문제의 타협에 달성했다. 7월 27일, 교전 쌍방은 정식으로 조선 정전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서 전쟁은 끝을 맺었다. 지원군도 그 사명을 다했다.

이 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은 대만 탈취의 기회를 잃었으며, 미국과 몇 년의 원한 관계를 가졌다. 동시에 5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직접 군사비로 약 20억 달러가 소모되었고 기타 간접 경제 손실은 계산하기 힘들다.<sup>90)</sup>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착오의 시간, 착오된 지점에서 발생한 착오된 전쟁이며 북조선인에 대해서, 그리고 북조선을 지지하는 러시아인에게 사실 모두 어떤 좋은 점이 없다 할지라도 중국에는 오히려 이익이 된 것이 있었다. 이 전쟁은 분명히 그들과 소련 사이의 미지근한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소련의 신중국에 대한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군대 현대화의 진전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북조선이 이미 궤멸될 중요한 시간에 지원군은 미군을 38선상으로 몰아냈으며, 이는 상당 정도 중국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

---

89) 1953년 3월 19일, 소련 부장 회의에서 전쟁 포로를 송환 제안에 관한 결의, APRF, 3/65/830/66~71.

90) 군측의 통계에 의하면, 전쟁중에 전사한 사람이 11만 4,000명이고, 병원에서 접수한 부상자가 38만 3,000명이며, 그 밖의 병으로 사망한, 자가 1만 3,000명, 2만 1,000명은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4,000여 명은 행방을 알 수가 없다. 徐焰, 『金门之战』, p. 322.

였고 국내 민중의 성망을 크게 제고하였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십 년 시간 속에서 중국 대륙을 둘러싼 주변은 미국이 대규모로 참여한 월남 전쟁을 포함해 전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조심스럽게 중국의 간여를 피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중국 대륙의 안전에 유리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Russian Presidential Archive(APRF) 문서.

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AVPRF) 문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Vol. 7(1951).

### <2차 자료>

『建国以来毛泽东文稿』, 第1册(中央文献出版社, 1987).

『党史研究资料』, 第2期, 第5期(1998).

『毛泽东军事文集』, 第6卷(中央文献出版社·军事科学出版社, 1993).

김양명, 『한국전쟁사』(서울: 일신사, 1976).

杜平, 『在志愿军总部』(海防军出版社, 1988).

邁可·沙勒, 郭俊禾譯, 『亚洲冷战与日本复兴』(台北金禾出版社, 1992)

薄一波,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上)(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1)

徐焰, 『金门之战』(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2).

徐焰, 『第一次较量—抗美援朝的历史回顾与反思』(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0)

聶榮臻, 『聶榮臻回顧錄』(下)(海防軍出版社, 1984).

蕭勁光, 『蕭勁光回顧錄』(續)(海防軍出版社, 1988).

沈志華, 『朝鮮戰爭揭密』(香港天地: 圖書有限會社, 1995).

-----, 『毛澤東, 斯大林與朝戰』(香港天地: 圖書有限會社, 1997).

艾奇遜, 『艾奇遜回顧錄』(上海譯文出版社, 1969).

楊奎松·沈志華·齊德學編譯, 『朝鮮戰爭研究的新材料新觀點』(中國軍史科學院, 1996).

力平, 『開國總理周恩來』(中央文獻出版社, 1995).

王焰外, 『彭德懷傳』(當代中國出版社, 1991).

李奇微, 軍事科學院外國軍事研究部譯, 『朝鮮戰爭』(軍事科學出版社, 1983).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戰爭』(上)(國防大學出版社, 1990, 중문번역본).

齊德學, “關於抗美援朝戰爭的幾個問題—兼談如何看待和運用俄羅斯已解密的朝鮮戰爭檔案問題”, 『中共黨史研究』, 第2期(1998).

徐焰, “朝鮮戰爭研究”, 『當代中國史研究』, 第1期(1994).

齊德學, 『朝鮮戰爭決策內幕』(遼寧大學出版社, 1991).

彼得·卡爾沃科西雷, 王希榮 外譯, 『國際事務概覽, 1949~1950』(上海譯文出版社, 1991).

한국 외교부, “6·25 진상: 러시아정부가 공개한 한국전쟁 기밀문서”(1994. 11).

Bradley, Omar N. & Blair, Clay, *A General's Life: An Autobiograph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Princeton, 1990).
- Paige, Glenn D., *The Korean Deision, June 24 ~30, 1950*(New York : The Free Press, 1985).
- Foot, Rosemary, *The Wrong War :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 ~1953*(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Goncharov, Sergei N. & John W. Lewis, &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Weathersby, Kathryn, "China's Strategy to End the Korean War", *Conference on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in Asia*(Hong Kong : 1996. 1. 9~12)
- , "Conference Report : The Korean War, An Assessment of the Historical Record", *Korea-America Society* (Georgetown University, 1995).
-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New York : MacMillan, 1960).

(Abstract)

## China's Military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Yang Kui Shoung(History)

During the cold war, the Korean War, with the exception of the Vietnam War, was one of the most combative and fierce wars between the Communists and Capitalists. Also, it was the sole military colli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In China, several decades of domestic conflicts just ended and the internal situation was bad-terrible economic difficulties and development lagged behind. Why did China fight against the Superpower,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War instead of taking care of its internal problems? Much research on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ar as well as prior to the cold war was done, but it wasnt until the release of Russias top-secret documents that there was any depth to the research. Still, there is a lack of a mulit-faceted and diverse research from the Chinese scholars. With the evidence of

the released documents, I will examine the reasons for Chinas military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During WWII, The United States adopted counter policies against Russia in Berlin a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occupation and separation of both countries. Berlins containment of division also arose on the Korean peninsula. Undeniably, after WWII, U.S.-Russias conflict create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creased the possibility for new wars to develop in East Asia. Russia demonstrated a real passivity in Berlins crisis, but on the Korean peninsula, Stalin urged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 Stalin agreed with Kim Il Sung's decision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any means, even military measures and provided military support. After the outbreak of war on June 25, the United States quickly intervened, and in the spring of 1951, the U.S. advance prevented Chinas takeover of Taiwan. Chinas main strategy was to simultaneously act on both Taiwan and the Korean Peninsula, but with United States involvement, intensifying the conflict, China chose to focus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proposes reasons for China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the actions taken during the War, and that cease-fire was unavoidable.

The Communist partys involvement with the Korean War caused the loss of opportunity to gain Taiwan, which created hostility for several decades with the United States. Simultaneously, China suffered 500,000 casualties and exhausted nearly 2 billion dollars on military spending, as well as indirect losses like economic and other figures hard to count. No matter the nature of the war, even with the loss of time and the point of the war, China profited from this war. First, Chinas prior

lukewarm relations with Russia became strong and thus Russia propelled the new Chinas economy drive forward and modernized and developed its military. In addition, China pushed out the U.S. military back toward the 38th parallel, thus demonstrated China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gained a high reputation among its citizens. Most importantly, the United States behavior towards China became cautious. For several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many wars broke out, including the Vietnam War, surrounding China, but the United States, on the whole avoided intervention. Chinas security, for the most part, benefited from it.

**Key Words : the Korean War, China's Participation.**